

제6장 죽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

오늘날 죽음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데, 의학의 발달에 따라 전에 찾아보기 어려웠던 뇌사, 식물인간, 안락사, 임사체험, 호스피스 등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의학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죽어가는 환자도 적절한 의학적 조치가 취해지기만 한다면, 몇 년간이나 죽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종합병원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는 이런 환자들이 연명치료 장치의 도움을 받아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보라매 병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이 2004년 6월29일 내려진 이후, 환자를 퇴원시키려고 하는 보호자와 이를 저지하려는 의사 사이의 실갱이는 계속 되고 있다. 안락사 문제와 함께, 과연 어떻게 죽는 것이 인간적인 죽음이나 하는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자살현상도 성숙한 죽음문화의 부재와 관련된다. 생사학, 죽음준비교육, 자살예방교육도 새로운 연구 분야로 형성되면서 인간으로서 존엄한 죽음 권리, 바람직한 죽음문화의 모색 등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의학적, 법적인 문제를 포함해 논의를 해야겠지만, 그런 식의 논의에 앞서 인간의 삶과 죽음, 생명 혹은 영혼의 문제라는 보다 큰 차원에서 죽음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간으로서 존엄한 죽음은 어떤 죽음이어야 하는지 하는 문제를 먼저 심사숙고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건강에 4가지 측면이 있다. :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인 건강.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영적인 건강을 추가시킴으로써 우리의 건강에 당연히 영혼이나 영성,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건강에 영적인 건강을 포함해 4가지 측면이 있다면, 죽음도 당연히 4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1 육체적 죽음, 2 사회적 죽음, 3 정신적 죽음, 4 영적인 죽음. 1) 그러나 우리 사회는 육체적 죽음과 사회적 죽음에만 관심을 가질 뿐 정신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에는 무관심하다.

불교의 죽음이해에서 중요한 용어가 바로 생사윤회와 열반이다. 생사윤회와 열반은 불교적 죽음관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므로, 불교 이해의 전체, 나아가 불교의 역사적 전개에 있어서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붓다의 출가동기, 깨달음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열반의 의미를 보다 자세히 검토한다면, 불교의 죽음이해가 보다 분명하고 알기 쉽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거꾸로 붓다의 출가동기,

1) 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호스피스는 죽어가는 사람의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보살피는 일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죽어가는 사람 중 호스피스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성숙한 죽음문화의 형성을 위해서는 죽음정의와 그 이해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깨달음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열반의 의미를 빼놓고 우리는 불교의 죽음을 충분히 논할 수 없다.

A 붓다의 출가, 깨달음, 그리고 열반

싯다르타 왕자가 왕궁을 버리고 출가하여 수행의 길에 들어선 목적은 죽음의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었다. 출가를 만류하는 부왕에게 “죽음이 없는 길을 알려주면 출가하지 않겠다”고 싯다르타는 말하기도 했다. 출가한 이후 오랫동안 진리를 추구했던 그는 어느 날 진리를 찾을 때까지 결코 일어서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무 밑에 계속 앉아 있었다. 해질 무렵 미혹으로 말미암는 온갖 어리석음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동트는 하늘에서 새벽이 반짝일 때, 깨달음을 성취함으로써 오랜 인내와 수행이 결실을 맺었다.

고타마는 자신을 무수한 삶에 걸쳐 가두었던 감옥이 부서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무명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였다. 무명 때문에 먹구름에 가린 달과 별처럼 그의 마음은 미혹에 휩싸였던 것이다. 한없이 이어지는 미혹의 파도에 가려 우리는 실재를 주관과 객관, 자아와 타아, 존재와 비존재, 삶과 죽음으로 잘못 나누었다. 이렇게 차별하는 마음으로 인해 잘못된 소견, 즉 감정, 갈망, 집착, 삶과 죽음의 감옥이 생겨났다. 생노병사의 고통은 감옥의 벽을 두껍게 만들 뿐이다.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간수를 붙잡고 그의 본모습을 바라보는 것이다. 무명이 바로 감옥을 지키는 간수이다. 2)

붓다는 무명(無明), 참된 본성에 대한 무지가 바로 생사윤회의 고통으로 떨어뜨리는 근본원인임을 깨달았다. 마음의 미혹을 끝내는 것이 곧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참된 본성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랜 정진 끝에 어느 날 새벽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외친 첫 마디가 “나는 불사(不死, Amrta)를 얻었다”는 말이었다. 불사의 산스크리트 원어 아므리따는 한문불교권에서 불사로 번역했지만, 무사(無死), 비사(非死)로도 옮겨질 수도 있다.³⁾ 붓다는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非死)” “죽음은 없다(無死)”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2) 『티베트의 지혜』 106쪽

3) 김성철 『중관사상』 (민족사, 2006) 36쪽

보리수 나무 아래 앉기 전까지 고민하게 만들었던 죽음이 알고 보니 실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했다. 죽음의 순간 우리가 맞을 죽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식의 죽음이 아니다(非死), 다시 말해 그런 죽음은 없다(無死)는 뜻이다. 죽음이 있다는 착각에 지금 살아있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고, 지금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삶과 죽음은 인연의 결과일 뿐이지 실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붓다는 말한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다음 “나는 죽지 않는다(不死),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非死), 죽음은 없다(無死)” 고 외친 것은 삶과 죽음은 우리 의식이 꾸며낸 허구, 인연에 따라 일시적으로 결합된 곳에 불과하다는 선언이었다.

붓다가 깨달은 다음 처음으로 제시한 교리가 바로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성제이다. 고제(苦諦)는 세상 사람들이 삶에서 느끼는 고통, 집제(集諦)는 고통의 원인, 멸제(滅諦)는 고통이 없어진 상태, 도제(道諦)는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뜻한다. 붓다가 태자 시절에 생로병사의 고통을 사문유관(四門遊觀)할 때 직접 보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출가했고, 깨달음을 얻자마자 첫 설법에서 사성제 가르침을 통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제시했다. 불교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성제 가운데 괴로움의 소멸, 열반의 실현에 있다. 붓다는 깨달음을 통해 죽음 극복을 선언했다. 따라서 붓다는 생로병사를 극복하기 위해 출가했고 깨달음의 순간에도 불사를 얻었다고 선언했으므로, 죽음 수용과 극복은 불교 가르침의 핵심인 것이다.

붓다 시대에 크리샤 고타미라는 젊은 여인이 살았다. 어느 날 그녀의 첫아이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죽었다. 비탄에 빠진 그녀는 아기의 시신을 끌어안고 아기를 되살리는 약을 달라고 간청하면서 거리를 떠돌아다녔다. 미친 듯이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그녀를 보고 사람들은 ‘고타미가 미쳤다’며 손가락질했다. 그때 행인 중 한 사람이 ‘아기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 붓다라고 알려주었다. 그녀는 붓다를 찾아가 발밑에 아기의 시신을 내려놓고 자신이 찾아온 사연을 말했다. 그러자 붓다가 말씀하셨다. “당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내에 들어가서 죽음을 겪지 못한 집이 있거든 그 집에서 겨자씨 하나만 가져오세요.”

그녀는 신이 나서 곧바로 시내에 들어가 우선 눈에 띄는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게 아닌가. 여인은 아이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온 시내를 돌아다녔지만, 붓다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집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아기의 시체를 남골당에 가져가 마지막 작별인사를 고하고는 곧바로 붓다를 찾아왔다. 붓다가 물었다. “그래, 겨자씨를 가져왔습니까?” 그러자 여인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붓

다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자식을 잃은 비통함으로 인해 저 하나만 죽음의 손아귀에서 신음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자 붓다는 “그러면 왜 또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까?”라고 여인에게 물었다. 여인은 갈구하는 눈빛으로 붓다를 바라보며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죽음을 넘어서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죽지 않는 것인지 가르침을 구하고자 합니다”라고 간절히 기원했다. 여인의 말에 연민의 표정을 짓던 붓다가 이어서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일 당신이 삶과 죽음의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우주에 단 한 가지 변치 않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건 바로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덧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기의 죽음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고통의 바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사의 끝없는 순환에서 벗어나는 단 하나 유일한 길은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음으로써 이제 당신은 진리를 배울 준비가 되었습니다.”⁴⁾

붓다는 생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로 깨달음을 통해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불교적 죽음이해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죽음과 열반 개념의 차이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 붓다교사의 정의에 따르면 ‘죽는다’에 해당하는 팔리어는 ‘kalam karoti’ 이다. ‘kala’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인간의 생명과 관련해 수명의 길이를 말한다. ‘kalam karoti’ 는 자신이 부여받은,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는 육체의 시간을 마친다는 뜻이다.⁵⁾ 불교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육체 중심의 죽음이해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명(호흡), 체온, 의식이 육체를 떠날 때.....모든 근이 무너지고 육체와 명(命)이 분리되는 데 이를 죽음이라 이른다.”⁶⁾

“수명(호흡)과 체온, 그리고 의식은 육신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지며 저 육신이 무덤 속에 버려지면 나무나 돌같이 마음이 없어진다.”⁷⁾

“세존께서 말씀했다. “수명(호흡), 체온, 그리고 의식 세 가지가 육신을 버릴 때 육신은 쓰러져 마치 아무 감각없는 나무처럼 된다.”⁸⁾

4) 『티베트의 지혜』 58-61쪽

5) 안양규 26쪽 <붓다의 죽음> (『불교평론』 2005년 겨울 7권 4호) 29쪽

6) 『잡아함경』 대정장 2권 150 중

7) 『잡아함경』 21권 (대정장 2권 85쪽 중)

8) 『잡아함경』 5권 (대정장 2권 26쪽 상)

우리의 생명은 수명(호흡), 체온, 그리고 의식 세 가지를 갖추고 있다. 호흡, 체온, 그리고 의식이 육신으로부터 벗어날 때 이를 죽음이라 일컫는다. 9) 살아있을 때에는 호흡, 체온, 의식 세 가지가 서로 분리되지 않지만, 호흡이 다하면 체온이 떨어져 육신이 차갑게 되고 이숙식(아뢰야식)이 몸을 떠나게 된다.10) 호흡이 멈추고 심장 박동이 정지하면서 육신은 기능이 다하게 된다. 어떤 순수하고 미묘한 마음(subtle mind)이 육신에서 떠나면 몸의 9가지 구멍으로부터 시신은 부패하기 시작한다고 달라이라마는 말한다. 죽은 이후 시신으로부터 벗어나 유지되고 윤회하는 것은 바로 subtle mind라는 것이다.11)

열반은 적멸(寂滅), 멸도(滅度), 무생(無生) 등의 뜻으로 옮겨진다. 열반의 특징으로, 상주(常住), 적멸(寂滅), 불사(不死) 등이 말해지고 있다.12) 열반은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난 적멸을 뜻한다. 열반의 세계는 불생불사이다. 따라서 붓다의 죽음이란 붓다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고, 붓다의 입멸이란 붓다가 불생불멸의 열반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붓다는 열반에 들어갔으므로 윤회에서 벗어났다. 붓다는 자신의 육체를 오래된 낡은 집에 비유한다. 세월이 지나면 집은 낡아 마침내 허물어지듯이 육신도 결국 죽게 된다. 집을 받히고

9) 죽으면 의식이 육신으로부터 떠나는 것에 대해 퀴블러 로스는 소아암 등으로 죽음에 직면한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다. “우리 몸은 형질로 만든 번데기와 마찬가지로 죽으면 영혼은 육신으로부터 벗어나 나비처럼 하늘을 향해 날아 올라간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도 “죽음이란 육신의 옷을 벗는 행위” 라고 규정했다. 또한 입사체험자들은 죽음의 순간 마치 허물 벗듯이 육체의 옷을 벗어버렸다. 죽음은 흡사 나비가 고치를 벗어 던지는 것처럼 육신을 벗는 것에 불과하다. 죽음은 보다 높은 의식 상태로의 변화일 뿐이다. 죽음의 순간에 유일하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육신이란 허물이다. 죽은 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봄이 와서 겨울코트를 벗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퀴블러로스는 말한다.

10) 『유식삼십송』에 제시된 아라야식은 다음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아라야식은 모든 존재하는 것의 종자가 머무는 곳이고, 일체의 종자를 가진 것으로서 일체종자식이라고도 한다. 2 아라야식은 과거세의 행위에 의한 혼습을 받지만,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무기(無記)이므로, 이숙(異熟)이라고도 한다. 3 인간의 생존의 근거에 있으면서 매 순간마다 작용하여 의식의 흐름을 형성한다. 윤회는 이렇게 부단히 작용하는 아라야식을 근거로 해서 성립된다. 4 아라야식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서 매 순간마다 지속되므로 잠재의식 또는 심층의식이라고도 부른다.....과거의 행위에 의해 아라야식에 혼습이 남겨져.....현세에 나타난 것이 말라식(末那識)과 육식(六識)이다. 지금 삶에서 작용하고 있는 말라식과 육식은 그 혼습을 아라야식에 남긴다. 이런 식으로 아라야식은 현세의 말라식과 육식과 함께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는 관계를 이룬다. (불교생명윤리 정립위원회 편 『현대 사회와 불교 생명윤리』 조계종출판사, 2006년, 182쪽)

11) 그러나 subtle mind가 윤회한다고 해서 실체로서가 아니라, 연기적 자아로서 윤회하는 것이다. 김용옥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 (통나무, 2002년) 696, 686쪽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의식이 육신을 떠나는 죽음의 순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제 죽음이라 불리는 것이 그대에게 찾아왔다. 그대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대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아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이 세상의 삶에 애착을 갖거나 집착하지 말라. 그대가 마음이 약해져서 이 세상에 남겨둔 것에 아무리 집착할지라도 그대는 이제 여기에 머물 힘을 잃었다. 그대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대는 윤회의 수레마퀴 아래에서 헤매는 것밖에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그러니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마라. 다만 진리, 진리를 깨달은 자, 그를 따르는 구도자들을 기억하라. 그대의 마음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 이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지난 사흘 반 동안 그대는 기절상태에 있었다. 기절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대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생각할 것이다. 그대는 지금 사후세계에 있다.” (류시화역, 『티베트 사자의 서』 정신세계사, 1995년 245-247쪽)

12) 『불광대사전』 5권 4149쪽

있던 대지는 여전히 변함없듯이, 붓다의 육신은 죽었지만 마음은 대지처럼 안정되어있다.¹³⁾ 붓다는 육신에서 벗어나는 길을 다음같이 말한다.

“저 금빛 찬란한 왕의 마차도 마침내는 낡고 부서지고야만다. 활기 넘치는 그대의 그 젊은 육체도 마침내는 늙어 부서지고야만다. 그러나 니르바나, 저 불멸을 향한 수행의 힘은 결코 늙거나 부서지지 않나니 그러므로 세대에서 세대로 니르바나, 이 불멸의 길을 길이 전해야한다.”¹⁴⁾

“지금 여래의 몸은 늙고 노쇠했다. 육신은 마땅히 사멸하는 과보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태어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히 고요한 열반을 구해야 한다. ¹⁵⁾

“부처님께서 계승으로 말씀하셨다.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은 죽는다. 수명은 반드시 다하게 되어 업에 따라 인연의 과보를 받는다. 선과 악 각각에 결과가 뒤따른다. 복을 쌓으면 하늘세계로 올라가고 악을 지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도를 닦으면 생사의 과보를 끊고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 윤회에서 벗어나 죽지 않게 된다. ¹⁶⁾

누구든지 죽은 이후 업에 따라 과보를 받아 윤회하게 된다. 그러나 윤회,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탈의 길 역시 붓다는 제시했다. 인용문 가운데 “도를 닦으면 생사의 과보를 끊고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 윤회에서 벗어나 죽지 않게 된다”는 계승은 불교적 죽음 이해를 시사해주고 있다. 붓다가 출가한 것도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기 위한 것으로, 깨달음이란 생사에 자유자재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성철 스님도 인과에 따라 생사윤회하는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해탈, 성불밖에 없다면서, 도를 닦아 성불하기 이전에는 영혼이 있어 자꾸자꾸 윤회한다고 말한다. ¹⁷⁾

13) 『불반니원경』 대정장 1권 169上

14) 『법구경』 석지현역, 민족사, 2000년, 95-99쪽

15) 『증일아함경』 대정장 2권 637中

16) 『별역잡아함경』 대정장 2권 392中

17) 성철, 『영원한 자유의 길』 (장경각, 1996) 24, 26쪽